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Korean Elderly:
The Definition, Types, and Predicting Variabl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백지은*

교수 최혜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h. D. Candidates : Paik, Jee-Eun

Professor : Choi, Hye-Kyou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lements, types, and determining factors of successful aging for the Korean elderly. In order to examine the expectations of the Korean elderly, a sample of 377 elderly aged 65 and over living in Seoul and Kyunggi areas was selected and interviewed. The elements of successful aging that the Korean elderly pointed out in the interviews were: 'peaceful and comfortable life,' 'self-maintenance,' 'secure social support,' and 'ostentation.' The expected elements of successful aging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successful aging: 'idealized expectation,' 'self-centered expectation,' 'balanced self-other expectation.' The elderly groups sorted by the types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evaluated economic status, and self-evaluated health statu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xpectations were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gender, and self-evaluated health condition. However,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expectation for successful aging were different for male and female elder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elderl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e results could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varied and unique life of Korean elderly, as well as in establishing a basis of intervention that meets the specific demands of the Korean elderly.

▲주요어(Key Words) :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노화 유형(successful aging types),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예측 요인(determinant factors), 맥락(contexts)

I. 문제제기

세계의 고령화 속에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의 진입기준인 7%를 넘긴 상태이다. 또한 오

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32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4).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수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이전의 의존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노인의 삶과는 다른,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에 잘 대처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장된 노년기와 긍정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오늘날의 Well-being에 대

* 주 저 자 : 백지은 (E-mail : whiteje9@hanmail.net)

** 교신저자 : 최혜경 (E-mail : chk@ewha.ac.kr)

한 관심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들이 바라는 이러한 행복한 노년기에 대해 “성공적인”, “생산적인”, 또는 “건강한” 노화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며(Baltes & Baltes, 1990; Garfein & Herzog, 1995; Glass, Seeman, Herzog, Kahn, & Berkman, 1995; Rowe & Kahn, 1998), 특히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그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Baltes & Baltes(1990)는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서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통제감,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으며, Rowe & Kahn (1998)은 (1) 질병 및 질병과 관련한 장애가 적은 것, (2)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 (3)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Fishcer와 Specht(1999)는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 건강을 제시하였다. Chou 등(2002)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고, 연령, 성, 교육정도,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빈도, 재정적인 긴장, 만성적 질병의 수, 자기가 평가한 건강, 청력 손실, 생활 만족도가 4가지 성공적인 지표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Charbonneau-Lyons 등(2002)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사회 & 가족관계, 내재적 가치, 재정적 관심, 성취, 그리고 인지적인 기능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그리고 김태현 등(1998)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신체, 정신 건강차원,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원, 가족관계차원, 직업, 은퇴생활 및 사회 참여도 차원의 4가지 다각적인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Torress, 1999),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달성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 환경,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Torress, 2002). 이러한 노인의 기대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주는 연구들로는 Manitoba Follow-up Study에서 2차 세계대전 캐나다 공군퇴역 군인 3,983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정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Robert와 그의 동료들(2003)의 연구와, Peter(2001)의 ‘성공적인 노화’와 ‘비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정의를 묻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에 있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노인 개개인의 경험 및 문화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나 그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여기고 보편적인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을 제시하려고만 할 뿐 노인집단 안에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이 다를 수 있

음을 간과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문화적인 특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한국인들의 인생관이나 생활문화는 서구인들의 것과 많이 다르다(신수진, 1993 ; 문숙재, 최혜경, 정순희 외, 1999).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기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고유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Torress, 2002).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는 전통적으로 유학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이승환, 1999; 조궁호, 1998; 한규석, 2002). 특히 이러한 유학사상은 한국사회에서 역사의 변천과 함께 그 형태나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각 개인에게 내재화 되었다.

성리학적 사상은 첫째,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보기 때문에 수기(修己)를 통한 개체로서의 자기 인격의 완성과 함께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보다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내집단과의 관계에 놀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관계의 유지 및 조화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다. 둘째, 이러한 도덕주체로서의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곧바로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며, 스스로에게 본유적으로 모든 도덕성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잘 간직하고 길러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의 원천이 스스로에게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타인 또는 자기와 상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스스로에게 책임을 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억제함으로써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능동적·주체적인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셋째, 성리학 사상에서는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기의 단점을 고쳐 나가려는 자기개선의 노력을 부단히 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자기의 단점 확인과 수용 및 이의 개선을 통해 자기 향상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조궁호, 2003). 이러한 성리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한국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며, 가족을 포함한 폭넓은 사적인 관계망이 중요하고, 또한 자기가 속한 집단의 평가가 자신의 노후의 삶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삶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관리 및 통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노인들은 서구의 세계관이나 인간관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쳐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도 서구의 것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 외에도, 개인의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더 의의를 두어할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나 맥락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어떠한 차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성공적인 노화 개념과 함께 그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몇몇 이루어져왔는데, Vaillant 등(2001)은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계층과 확대 가족 망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Chou(2002)는 연령, 성, 교육수준, 긴밀한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의 빈도, 재정적인 긴장, 만성적인 질병의 수, 자가건강평가, 청력 손실, 인생만족도가, 그리고 Ford 등(2000)은 노인들의 자율성이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Crosno 등(2002)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다 더 좋은 건강과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게 해 주었으며, 그들을 보다 더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하였다(강인, 2003 재인용). 그리고 노인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azer, 1991 ; Chatters 등, 1985). 이를 변인 중에서 특히 성(sex)은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 충화요인으로서, 개인의 성별은 노인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경험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Himmert, Shaner, & Garstka(1995)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역할과 이에 따른 경험이 노화에 대한 본질을 달리 보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Herzog와 Morgan(1992)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열쇠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만들어내고 사용할 기회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다(Solomon & Szwabo, 1994). 유교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던 시대를 살아온 현재의 한국노인들에게 있어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전통적으로 달리 경험해온 것들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그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구노인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있으며, 우리나라 노인이 기대하는 특유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과 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노화가 노인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살아온 자신의 상황과 경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살펴보자 한다. 따라서 먼저 한국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와 차원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렇게 이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다양한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을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적 차원에

서 살펴보자 한다. 그럼으로써 서구적인 가치관과 개념에 의존해 왔던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서 탈피하여,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고유의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과 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1>), 총 377명 중 여성 노인이 59.2%, 남성 노인이 40.8%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많은 우리나라 인구학적 분포를 반영하고 있었다. 연령대 역시 65~69세가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70~74세가 29.2% 그리고 75세 이상 80세 미만이 15.9%였으며 80세 이상은 15.4%로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대략 72세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78.1%에 해당하는 293명의 연구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22%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소득이 199만원인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한국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 결혼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 혼인 상태가 유지되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66.0%였으며,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및 별거중인 사람은 31.8%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7.3%, 고졸이 26.3% 이었으며 무학과 국졸이 각각 16.4%, 21.2%로 나타났으며, 평균교육수준이 대략 10년으로 이는 한국 노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를 포함하여 ‘건강하다’라고 평가한 비율이 49.3%로 건강한 노인들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조사대상자 중 10.6%, 14.3%가 각각 ‘상’, ‘중상’으로, 35%가 ‘중’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경제상태를 ‘하’로 평가한 노인은 21%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김미혜 등(2003)²⁾의 「고령화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삶의 기대에 따른 노인부양체계구축」을 위한 1차 연구 중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요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382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일부

1) 통계청(2000). 노인가구(60세 이상) / 가계수지항목별 기본항목 (60세 이상 노인가구 월 평균소득 112만원).

2)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2003).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협동연구 지원사업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항목	N	%	M (SD)	특성	항목	N	%	M (SD)
지역	서울	287	76.1	72.45 (5.43)	성별	남	154	40.8	199.64 (162.52)
	경기	64	17.0			여	223	59.2	
	무응답	26	6.9			50만원미만	83	22.0	
나이	65-69세	146	38.7	9.59 (5.56)	소득 수준	50-100만원미만	41	10.9	199.64 (162.52)
	70-74세	110	29.2			100-150만원미만	54	14.3	
	75-79세	60	15.9			150-200만원미만	16	4.2	
	80세 이상	58	15.4			200-250만원미만	40	10.6	
	무응답	3	0.8			250-300만원미만	13	3.4	
	무학	62	16.4			300-350만원미만	22	5.8	
교육 수준	국졸	80	21.2	9.59 (5.56)	결혼 상태	350-400만원미만	19	5.0	2.72 (1.24)
	중졸	30	8.0			400-450만원미만	21	5.6	
	고졸	99	26.3			450-500만원미만	10	2.7	
	대학이상	103	27.3			500만원 이상	26	6.9	
	무응답	3	0.8			무응답	32	8.5	
	불교	106	28.0			기혼 및 동거	249	66.0	
종교	기독교	122	33.1	3.29 (1.02)	결혼 상태	이혼, 별거, 사별	120	31.8	2.72 (1.24)
	천주교	65	17.0			무응답	8	2.1	
	무교	74	19.2			상	40	10.6	
	무응답	10	2.7		주관적인 경제 상태	중상	54	14.3	
	매우 건강하다	38	10.1			중	132	35.0	
주관적인 건강 상태	건강하다	131	34.7			중하	63	16.7	
	보통이다	119	31.6			하	79	21.0	
	건강하지 않다	63	16.7			무응답	9	2.4	
	매우 건강하지않다	18	4.8			계	377	100.0	
	무응답	8	2.1						

터 8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일대일로 직접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수거된 설문지 382부 중 응답내용이 미비한 5부를 제외한 총 377부가 최종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은 김미혜 등(2003)의 「고령화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삶의 기대에 따른 노인부양체계구축」을 위한 1차 연구 중 심층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65세 이상의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살아온 과정과 경험, 그러한 과정과 경험 속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자신의 삶의 역정과 연계하여 이야기하는 이러한 심층면담을 통해 성공적인 노화의 9가지 영역 67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또한 심층면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기존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문헌조사에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38개 문항

을 포함하여 총 105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 문항과 조사대상자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기타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105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동거자, 거주지역,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기타 관련변인으로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하'에서 '상'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치 못함'에서 '매우 건강'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수거된 설문지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for 12.0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주요기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신뢰도, 군집분석, 판별분석, Crosstab,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에 관한 105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를 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준거기준에 따라 평균이 2미만이거나, 표준편차가 1이상이거나, 편포도가 1이상인 경우의 문항인 총 37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나머지 68개 문항의 각 문항과의 총점간의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를 구하였는데 0.3이하인 경우가 전혀 없

었으며,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여 .7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7 이하로 제거할 문항이 없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종적으로 6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Principal Axis Factoring을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그 값이 0.4 이상일지라도 요인들 간에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없는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더니 총 31문항,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표2>).

첫 번째 요인은 '일상의 순조로움'이다.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자녀들이 걱정 없이 잘 살고, 생활비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 자원이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

<표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요인별 내용과 점수 및 신뢰도

요인	내용	요인부하량	Alpha
일상의 순조로움	1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아야 한다. 2 결혼한 자녀들이 이혼, 사별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 3 생활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4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야 한다. 5 잠을 잘 자야 한다. 6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한다. 7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야 한다. 8 할일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9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10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683 .654 .633 .625 .567 .538 .526 .483 .434 .426	.889
자기관리	1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2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3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4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6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7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8 취미활동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한다. 9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10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11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12 매일 매일 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669 .604 .604 .595 .589 .582 .553 .501 .499 .492 .462 .451	.889
사회적 지원의 확보	1 자녀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3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자발적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4 노인을 국가나 사회단체가 돌봐주어야 한다. 5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친하게 배풀며 살아야 한다. 6 동네 노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667 .598 .565 .550 .521 .458	.807
과시성	1 자녀들이 학식이 높아야 한다. 2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여야 한다. 3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658 .647 .452	.701

가 원활한 것으로 삶의 기본이 되는 전반적인 부분이 대체로 평안한 것이 성공적인 노화로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자기관리'이다. 노년기에도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지원의 확보'이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도움의 필요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이나 동네노인, 국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의 노년기에 필요한 지지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는 부양자원으로서의 다양한 관계망을 갖는 것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이 단지 자신의 내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과시성'이다.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노인들에게 있어 자녀들을 많이 가르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노년기에도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 그리고 노년기에도 활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한 독립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서구적인 가치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와는 달리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나 부양원이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자신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유교사상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현재 노인들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삶의 의미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자녀들이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노년기에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베푸는 등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노

년기에도 계속적인 도움을 주는 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1) 성공적인 노화 유형

본 연구 대상자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보기 위해 성공적인 노화의 4요인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 3개, 4개,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후, 각 군집에 대한 해당 빈도와 요인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군집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3개의 군집을 선택하였다. 성공적인 노화 군집 수에 따른 표본의 빈도는 <표 3>에, 군집별 성공적인 노화 요인 평균 점수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 유형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중요성 기대점수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기대인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중심으로 한 기대인지에 따라 크게 구분해볼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 군집은 성공적인 노화 요인 점수에 있어 다른 군집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즉 이 군집에 속하는 노인들은 다른 군집에 속하는 노인들에 비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며, 성공적인 노화가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 모두가 중요시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의 21.2%가 이 군집에 속한다.

두 번째 군집은 3개의 군집 중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점수가 모두 가장 낮으며, 이 중 '과시성'에 대한 기대가 다른 군집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다.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과 비교해볼 때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점수에 있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타인의 평가나 시선보다는 자신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아 중심 기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27.6%이다.

세 번째 군집은 다른 군집들과 비교하여 모든 성공적 노화

<표 3> 성공적인 노화 집단수 별 빈도분포

<N=377>

군집수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2	204(54.1)	173(45.9)			
3	80(21.2)	104(27.6)	193(51.2)		
4	193(51.2)	31(8.2)	73(19.4)	80(21.2)	
5	92(24.4)	140(37.1)	56(14.9)	24(6.4)	65(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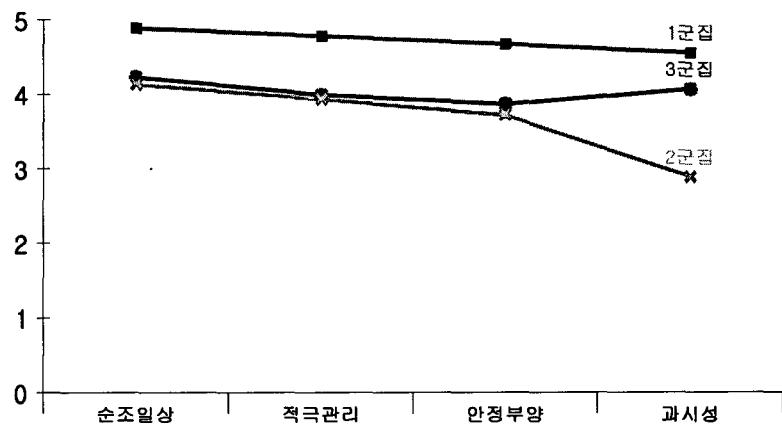
<표 4> 군집별 각 성공적인 노화 기대 정도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M (SD)	F	Duncan's	M (SD)	F	Duncan's	M (SD)	F	Duncan	M (SD)	F	Duncan's
1군집 (80)	4.89 (.17)	196.46 ***	c	4.78 (.28)	239.98 ***	c	4.67 (.35)	166.72 ***	c	4.55 (.52)	471.62 ***	c
2군집 (104)	4.13 (.35)		a	3.89 (.31)		a	3.71 (.42)		a	2.88 (.43)		a
3군집 (193)	4.23 (.27)		b	3.99 (.29)		b	3.86 (.37)		b	4.06 (.29)		b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성공적인 노화 군집별 그래프

요인들에서 중간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인 노화가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가 모두 중요시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51.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성공적 노화 기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기대형’은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 대체로 평안하고, 노년기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며, 노년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망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내세울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중심 기대형’은 3개 군집 중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여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노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대상인 자녀들의 출세나 노년기에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등의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부분, 즉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타인의 평가하는 부분을 비교적 덜 중요하게 보는 유형이다.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은 위의 두 군집의 중간정도로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의 중요성을 ‘자아 중심 기대형’보다는 높게, ‘이상적인 기대형’보다는 낮게 여기는 형이라고 하겠다.

2) 성공적인 노화 요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예측력

군집의 빈도와 군집간의 성공적인 노화 요인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공적 노화의 4개 요인들이 성공적 노화 유형 군집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표 5>), 4개의 요인 모두 누가 어떤 유형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chi^2 = 778.397$, $p < .000$), ‘과시성’(.789), ‘자기관리’(.519), ‘일상의 순조로움’(.492), ‘사회적 지원의 확보’(.458) 순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 차이를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자신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자기관리와 활동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공적 노화 요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에 대한 예측력
(N=377)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일상의 순조로움	.488	196.463***	.492
자기관리	.438	239.982***	.519
사회적 지원의 확보	.529	166.721***	.458
과시성	.284	471.624***	.789

$$\chi^2 = 778.397 ***$$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성공적 노화 요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분류 적중률
(N=377)

군집 (N)	이상	자아	자타	Hit Ratio
이상 (80)	78(97.5%)	0(0%)	2(2.5%)	99.5%
자아 (104)	0(0%)	104(100%)	0(0%)	
자타 (193)	0(0%)	0(0%)	193(100%)	

<표 6>의 판별분류표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 요인들이 연구 대상자들의 99.5%를 정확히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 유형이 3가지 유형이므로 일반적으로 약 33%의 판별력이 예측되는데, 성공적 노화 요인들에 의해 99.5%의 판별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상적인 기대형'이 '이상적인 기대형'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경우가 97.5%(실제 사례 80명, 판별결과 78명), '자아 중심 기대형'이 올바르게 판별된 경우는 100%(실제사례 104명, 판별결과 104명),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이 올바르게 판별된 경우는 100%(실제사례 193명, 판별결과 193명)에 이른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이 3개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들은 올바르게 판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노인의 특성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7>, <표 7-1>), 첫째, '이상적인 기대형'은 사별이나 이혼, 별거를 하는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연령이 가장 높고 (M=74.25세),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대략 8년 7개월 정도로 낮

은 편이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아 중심 기대형'은 다른 군집에 비해 사별, 이혼, 별거하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81.4%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한 노인의 경우 평균연령이 대략 70세로 가장 나이가 적은 편이며, 가장 교육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평균 교육연수-약 11년) 있다. '이상적인 기대형'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하는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은 '이상적인 기대형'과 유사한 비율로 사별이나 이혼, 별거를 한 사람보다는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노인이 보다 많았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 평균연령이 약 72세로 보통인 편이며, 교육수준이 '이상적인 기대형'과 함께 낮은 편(평균 9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성공적인 노화 유형의 특성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로 노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7-1>), 성공적 노화 유형별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이상적인 기대형'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며,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이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377)

변인	구분	N(%)			
		이상 (80)	자아 (104)	자타 (193)	Total
성	남	34 (42.5)	51 (49.0)	69 (35.8)	154
	여	46 (57.5)	53 (51.0)	124 (64.2)	223

$$\chi^2 = 5.053$$

배우자 여부	기혼 또는 동거	49 (61.3)	83 (81.4)	117 (62.6)	249
	사별, 이혼, 별거	31 (38.8)	19 (18.6)	70 (37.4)	120

$$\chi^2 = 12.443**$$

* p < .05 ** p < .01 *** p < .001

<표 7-1>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이상 (80)	74.25 (5.56)	8.772 ***	c	8.64 (5.71)	8.353 ***	a	199.00 (173.28)	.006	
자아 (104)	70.93 (4.68)		a	11.45 (4.84)		b	198.47 (144.52)		
자타 (193)	72.52 (5.54)		b	8.98 (5.66)		a	200.58 (168.19)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M (SD)	F	Duncan	M (SD)	F	Duncan
이상 (80)	2.98 (1.45)	1.478		3.50 (1.16)		b
자아 (104)	2.71 (1.06)			3.39 (.93)	4.181 *	ab
자타 (193)	2.69 (1.25)			3.15 (.99)		a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기대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나이가 가장 많고, 교육수준도 낮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아 중심 기대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3개의 유형 중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의 사람들은 연령은 중간인 편이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이가 많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서도 보다 높게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공적인 노화 유형의 예측요인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공적인 노화 기대유형에 따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³⁾.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상태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에 대한 예측력(N=377)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성	.988	2.502*	-.278
기혼 및 동거	.971	5.082**	-.433
연령	.953	8.349***	.683
교육기간	.961	6.840**	-.543
소득수준	1.000	.041	.027
주관적 경제상태	.991	1.967	.145
주관적 건강상태	.968	5.537**	.216

$$\chi^2 = 48.670 ***$$

* p < .05 ** p < .01 *** p < .001

3) 판별분석에서 더미변수 사용 : 성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 배우자 여부에서 기혼 및 동거는 1, 기타는 0, 연령과 소득수준은 mid point로 record해서 연속변수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교육연수로 연속변수화하여 무학은 0, 국졸은 6, 중졸은 9, 고졸은 12, 대졸이상은 16으로 더미처리함. 이하 판별분석에서는 동일 처리함.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 상태 변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분류적중률
(N=377)

군집 (N)	이상	자아	자타	Hit Ratio
이상 (80)	38(50.7%)	18(24.0%)	19(25.3%)	43.5%
자아 (104)	19(19.8%)	56(58.3%)	21(21.9%)	
자타 (193)	47(28.1%)	67(40.1%)	53(31.7%)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과 주관적인 경제 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인들 모두를 포함시켜 성공적인 노화 유형 군집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와 <표 9>). 그 결과 소득수준,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제외하고, 성, 기혼 및 동거(배우자 여부), 연령, 교육기간,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인이 누가 어떤 유형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대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8.670$, $p<.000$). 특히 연령, 교육기간, 기혼 및 동거(배우자 여부), 성, 주관적 건강상태의 순으로 판별함수에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노년기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동거자가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유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에 의해 정확하게 분류되는 판별적중률은 43.5%이며, ‘이상적인 기대형’이 정확하게 판별되는 비율은 50.7%, ‘자아 중심 기대형’이 정확하게 판별되는 비율은 58.3%,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은 31.7%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차이

1) 성별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특성

이제까지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 유형을 예측하는 효과적인 변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화 유형을 판별하는데 성이 유의하게 정확하게 예측함을 보여주는 결과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역할과 이에 따른 경험 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구분하여 남성 노인 내에서의 기대유형에 따른 차이, 여성노인 내에서의 기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요인별 점수는 여성노인의 경우 모두 ‘이상적인 기대형’,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 ‘자아 중심 기대형’ 순으로 높았다(<표 11>). 하지만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일상의 순조로움’과 ‘과시성’에 대해서는 여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기대형’,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 ‘자아 중심 기대형’ 순으로 높았으나, ‘자기관리’와 ‘사회적 지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기대형’의 남성노인 가장 높이 기대하고, ‘자아 중심 기대형’,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의 남성노인은 통계적으로 그 기대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또한 남성노인의 경우 유형에 따라 <표 10-1>, <표 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노인들의 유형별 연령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상적인 기대형’의 남성노인들은 평균연령이 약 75세로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과 ‘자아 중심 기대형’의 남성노인들에 비해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남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각 성공적인 노화 기대 정도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이상 (34)	4.86 (.19)	80.62 ***	c	4.76 (.30)	85.09 ***	b	4.59 (.40)	63.13 ***	b	4.58 (.55)	224.07 ***	c
자아 (51)	4.14 (.31)		a	3.97 (.31)		a	3.68 (.38)		a	2.77 (.46)		a
자타 (69)	4.26 (.26)		b	4.06 (.28)		a	3.75 (.41)		a	4.00 (.28)		b

* p < .05 ** p < .01 *** p < .001

<표 10-1> 남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154)

변인	구분	N(%)			
		이상 (34)	자아 (51)	자타 (69)	Total
배우자 여부	기혼 또는 동거	26 (76.5)	46 (90.2)	60 (87.0)	132
	사별, 이혼, 별거	8 (23.5)	5 (9.8)	9 (13.0)	22

$\chi^2 = 3.296$

* p < .05 ** p < .01 *** p < .001

<표 10-2> 남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이상 (34)	75.24 (5.06)	5.499 **	b	11.56 (4.92)	.427		198.44 (165.09)	.651		3.18 (1.53)	1.628		3.50 (1.24)	1.053	
자아 (51)	71.51 (4.92)		a	12.47 (4.23)			202.55 (151.06)			2.69 (1.12)			3.63 (.85)		
자타 (69)	72.29 (5.55)		a	12.17 (4.43)			230.97 (164.34)			2.94 (1.17)			3.38 (.82)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각 성공적인 노화 기대 정도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M (SD)	F	Duncan									
이상 (46)	4.91 (.14)	116.09 ***	c	4.80 (.27)	159.34 ***	c	4.73 (.31)	110.10 ***	c	4.54 (.52)	243.59 ***	c
자아 (53)	4.11 (.39)		a	3.80 (.31)		a	3.74 (.45)		a	2.99 (.37)		a
자타 (124)	4.22 (.28)		b	3.95 (.29)		b	3.92 (.33)		b	4.09 (.30)		b

* p < .05 ** p < .01 *** p < .001

<표 11-1>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223)

변인	구분	N(%)			
		이상 (46)	자아 (53)	자타 (124)	Total
배우자 여부	기혼 또는 동거	23 (50.0)	37 (72.5)	57 (48.3)	117
	사별, 이혼, 별거	23 (50.5)	14 (27.5)	61 (51.7)	98

$$\chi^2 = 8.899 *$$

* p < .05 ** p < .01 *** p < .001

<표 11-2>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M (SD)	F	Duncan
이상 (46)	73.52 (5.86)	4.811 **	b	6.48 (5.32)	8.427 ***	a	199.42 (181.06)	.229		2.83 (1.39)	.990		3.50 (1.11)	3.625 *	b
자아 (53)	70.37 (4.40)		a	10.44 (5.22)		b	194.39 (139.13)			2.75 (1.01)			3.17 (.96)		ab
자타 (124)	72.65 (5.56)		b	7.18 (5.49)		a	181.19 (168.52)			2.55 (1.27)			3.01 (1.06)		a

* p < .05 ** p < .01 *** p < .001

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표 11-1>과 <표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 유형 군집에 따라 배우자 여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아 중심 기대형'의 여성노인은(53명) 다른 유형의 여성노인에 비해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으며(72.5%),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높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로 여성노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분산분석과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중간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기대형'의 여성노인은(46명)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비율이 비슷하며, 나이가 많은 편이며, 교육수준은 낮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여성노인들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에 속하는 노인들은(124명) '이상적인 기대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비율이 비슷하며, 연령은 높은 편이고, 교육수준은 낮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들은 성공적인 노화 기대유형별로 연령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여러 특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기대 유형은 남성노인들의 특성에 의해서이기보다 여성노인들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성별 성공적인 노화 유형의 예측요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유형별 성공적인 노화 기대정도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 노인의 성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유형 군집으로 분류되는데 있어 중요한 예측력을 갖는 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성공적인 노화 유형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 유형을 예측해주는 주요 변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구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성공적 노화의 4개 요인을 포함시켜 성공적인 노화 유형 군집에 대한 판별분석을 한 결과(<표 12>), 4개 요인이 모두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각각의 성공적 노화 기대유형의 차이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 : $\chi^2 = 318.305$, $p<.000$ / 여성노인 : $\chi^2 = 455.469$, $p<.000$). 하지만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유형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변인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 있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남성노인의 경우 '과시성',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확보', '자기관리', '일상의 순조로움', '과시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특히 '과시성'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타인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중요시하는지가 이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 요인들이 남성노인의 경우 98.1%를, 여성노인의 경우 99.1%(<표 13>)를 정확하게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요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에 대한 예측력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남성 노인 (154)	일상의 순조로움	.484	80.623***	.456
	자기관리	.470	85.087***	.452
	사회적 지원의 확보	.545	63.130***	.383
	과시성	.252	224.071***	.801
$\chi^2 = 318.305$ ***				
여성 노인 (223)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일상의 순조로움	.487	116.092***	.528
	자기관리	.408	159.340***	.594
	사회적 지원의 확보	.311	193.591***	.656
	과시성	.500	110.101***	.527
$\chi^2 = 455.469$ ***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분류적중률

		1군집	2군집	3군집	Hit Ratio
남성 노인 (154)	이상 (34)	34(100%)	0(0%)	0.0%)	98.1%
	자아 (51)	0(0%)	50(98.0%)	1(2.0%)	
	자타 (69)	2(2.9%)	0(0%)	67(97.1%)	
여성 노인 (223)		1군집	2군집	3군집	Hit Ratio
	이상 (46)	44(95.7%)	0(0%)	2(4.3%)	99.1%
	자아 (53)	0(0%)	53(100.0%)	0(0%)	
	자타 (124)	0(0%)	0(0%)	124(100%)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주관적인 경제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인들이 성공적인 노화 기대 유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하는가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 변인만이 남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기대 유형의 차이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예측력 있는 변인으로 판명되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기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기혼 및 동거(배우자 여부) 순으로 예측력 있는 변인으로 판명되었다(<표 14>). 남성노인의 경우 정확하게

분류되는 표본 비율은 43.2%, 여성노인의 경우 45.3%로 나타났다(<표 15>). 따라서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을,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기혼 및 동거(배우자 여부) 변인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예측할 수 있다.

<표 14>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상태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남성 노인 (154)	기혼 및 동거	.979	1.559	-.388
	연령	.940	4.650*	.685
	교육기간	.996	.278	-.163
	소득수준	.991	.651	-.082
	주관적 경제상태	.979	1.558	.392
	주관적 건강상태	.985	1.132	.045
$\chi^2 = 22.819 *$				
여성 노인 (223)	예측요인	Wilks' Lambda	F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기혼 및 동거	.968	3.098*	-.333
	연령	.949	4.989**	.552
	교육기간	.928	7.224**	-.632
	소득수준	.998	.204	.068
	주관적 경제상태	.987	1.249	.080
	주관적 건강상태	.950	4.938**	.352
	$\chi^2 = 36.448 ***$			

* p < .05

** p < .01

*** p < .001

<표 15>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들의 성공적인 노화 유형
분류적 종률

남성 노인 (154)		1군집	2군집	3군집	Hit Ratio 43.2%
	이상 (34)	20(62.5%)	6(18.8%)	6(18.8%)	
	자아 (51)	12(24.5%)	25(51.0%)	12(24.5%)	
여성 노인 (223)		1군집	2군집	3군집	Hit Ratio 45.3%
	이상 (46)	23(53.5%)	10(23.3%)	10(23.3%)	
	자아 (53)	5(10.6%)	31(66.0%)	11(23.4%)	
	자타 (124)	32(32.0%)	36(36.0%)	32(32.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노인이 기대하는 그들 고유의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러한 유형차이에 기여하는 예측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신의 상황, 경험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띠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사회충화 요인인 성(sex)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기대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를 살펴본 결과,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일상의 순조로움’, 노년기에도 남은 삶에 대해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관리’, 노년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지자원인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적인 차원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지원의 확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즉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파시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인들에게 내재되어있는 유교사상에 의해 나타나는 고유한 요소로 보여진다.

둘째,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요성 기대 정도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기대인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대인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유형별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주관적인 경제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적인 기대형’은 4개의 요인 모두를 가장 높게 중요하게 기대하는 유형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나이가 가장 많고, 교육수준은 낮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

인들이다. ‘자아 중심 기대형’은 4개의 요인 모두 가장 낮게 중요시하는 유형이며, 이 중 특히 ‘파시성’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지게 낮다. 이 유형의 노인은 대부분 배우자가 있거나 동거인이 있으며,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은 앞의 두 유형의 중간정도에 속하며, 연령은 중간정도이며, 교육수준이 낮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또한 상황적, 맥락적인 경험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수인 성(sex)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 유형별 연령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으며, ‘이상적인 기대유형’의 노인들이 다른 유형의 노인들에 비해 나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 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의 경우 기대 유형에 따라 배우자 여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적인 기대형’의 여성노인들이 다른 유형의 여성노인에 비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아 중심 기대형’의 여성노인은 대부분이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으며, 연령이 가장 낮고 교육수준은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정한 자아-타인 중심 기대형’의 여성노인은 연령이 높은 편이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넷째,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를 제외하고 연령, 교육기간, 기혼 및 동거(배우자 유무), 성, 주관적 건강상태의 순으로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라, 노년기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은 하나의 단일한 모습이 아닌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적인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예측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차이를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노화의 기대유형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성공적인 노화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과시성',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순으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확보', '자기관리', '일상의 순조로움', '과시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특히 '과시성'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타인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하는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중요시하는지가 이들의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여성노인들이 보다 더 관계지향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강요되었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주관적인 경제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변인들의 예측력에 있어서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게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 변인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기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여부 순으로 판별력 있는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에 따라,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기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여부 변인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전체 377명이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은 모든 노인에게로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정확하게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에 사용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본 연구에 앞서 김미혜 등(2003)의 「고령화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삶의 기대에 따른 노인부양체계구축」을 위한 1차 연구 중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검증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검증을 통해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할 수 있고, 성공적인 노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 척도를 마련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는 서구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왔으며, 획일적이고 혐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인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왔으며 따라서 개인의 노화과정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에 있어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국노인들의 경험이나 맥락에 따라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들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보다 한국사회에서 추구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성공적인 노화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많은 노인들의 보다 다양한 한국노인의 노후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즉 한국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개입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11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6월 13일

【참고문헌】

- 장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김태현(1998). 노년학. 교문사.
- 문숙재·최혜경·정순희 외(1999). 부양서비스가 노인과 부양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1), 15-30.
- 신수진(1993). 성인 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 사회교환론과 상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 교석사학위논문.
- 이승환(1999). 문화심리학과 자아형성. *한국심리학회: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학계 심포지엄 자료집: 문화와 심리학, 21-33.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 조궁호(1998). 사회 및 성격 : 순차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4) : 수양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9-37.
- 조궁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나남출판.
- 통계청(2004). 장래인구추계.
-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Baltes, P. B. &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B. Baltes & M.M.

- Baltes(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bonneau-Lyons, D. L., Mosher-Ashley, P. M. & Stanford -Pollock, M.(2002). Opinions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living adults regarding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10), 823-834.
- Chou, K. L. & Chi, 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rosnoe, R., & Elder, G. H.(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Fishcer, B. J. & D. K. Specht(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ord, A. B., Haug, M. R., Stange, K. C., et al(2000).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2*(4), 470-489.
- Garfein, A. J. & Herzog, A. R.(1995). Robu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 S77-87.
- Glass, T. A., Seeman, T. E., Herzog, A. R., Kahn, R. & Berkman, L.F.(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 S65-66.
- Herzog, A. R. & Morgan, J. N.(199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value of productive activities: Four different approaches. *Research on Aging, 14*, 169-198.
- Himmert, M. L., Shaner, J. L. & Garstka, T. A.(1995). *Cognitive processes affecting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 the case for stereotype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communication*. In Nussbaum, J. F. & Coupland, J.,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aging research* 105-131.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Robert B. T., Leedine, L. & Edward, C.(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The manitoba follow-up study. *The Gerontologist, 43*, 735 -744.
-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Torres, S.(1999).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eing. *Ageing and Society, 19*, 33-51.
- Torres(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Vaillant, G. E., & Mukamal, K(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